

‘송전선로 건설 반대’ 한목소리

농촌 정주환경 개선 탄력

범군민대책위원회 발족… 무주군민들, “도시 위해 농촌 위협하는 정책 철회 마땅”

신장수~무주영동 간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이하 송전선로 반대)하는 무주군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전선로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유송열, 나승인)는 6일 무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해당 지역 및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법적·정치적 대응 투쟁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노력의 정부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계획으로 인해 처참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라며 “송전탑이 들어서면 소중한 자연이 훼손되고 경관이 망가져 야생동물이 살지 않는 지역,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고장, 산불위험이 상존하는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이 위협을 받는다”라며 삶터 이전과 거주 환경 악화, 전차파로 인한 건강 악화, 토지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언급했다. 또 농작물과 가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보상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분열 등의 우려를 전했다. 이외에도 전력 손실과 이를 보완하



송전선로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6일 무주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해당 지역 및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법적·정치적 대응 투쟁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기 위해 발전소가 필요해지는 악순환, 막대한 건설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 등 장거리 송전의 문제점을 짚으며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분산형 전력망을 기반으로 한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 에너지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발대식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도시를 위해 농촌이 희생되는 구조”라며 “무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지 선정 등 모든 진행

절차를 단호히 거부하고 대책위를 중심으로 전 군민 연대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대식 후 진행된 특강 시간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 대표가 참석자들과 ‘송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과 신규 송전선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공유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혜택 강화

진안군, 융자금 이율 기존 1.5%→1%로 대폭 인하

진안군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이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혜택으로 지원한다. 군은 융자금 이율을 기존 연 1.5%에서 1.0%로 대폭 인하하여 농어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 더욱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을 통해 농어민들이 더욱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인 농어업인은 최대 5,000만 원, 농업법인인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상환 조건은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는 2월 1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융자금은 재료비, 기계장비 구입, 인건비, 사업장 수리 등에 활용 가능하다. 진춘성 군수는 “농가들이 자금 활용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개발 및 농산물 유통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경로당 구강관리사업 실시

진안군은 올해 말까지 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12곳을 선정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구강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경로당으로 선정된 곳에 공중보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전문 인력이 방문해 구강검진 및 시린 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노년기 구강질환 관리법, 틀니 사용법 및 세척법 교육 등을 진행한다. 특히 개인별 구강 상담과 맞춤형

솔질 관리 및 틀니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그에 맞는 구강위생용품 배부와 실습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구강관리가 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천면 장동경로당 이용자 이 모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한데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관리를 해주니 고맙다. 치간 칫솔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며 호응을 보였다. 군의회 건강증진과장은 “고령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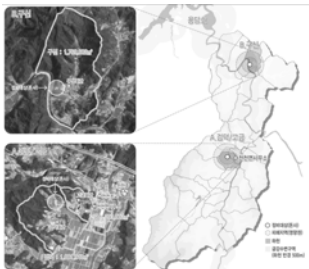


인해 급증하는 어르신들의 구강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의 삶이 되도록 지속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42억원 확보

장수군은 천천면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42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부터 도입돼 악취·소음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 및 이전에 주거환경과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비한 부지를 활용해 농촌 정주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장수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그동안 마을과 인접한 축사의 악취 등으로 잦은 민원이 제기됐던 천천면 봉덕리와 연평리 일원 3,833㎡ 면적의 둔사 2곳을 철거 및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정부의 재정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이 국도비 비율이 65%에 달하는 공모사업으로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예산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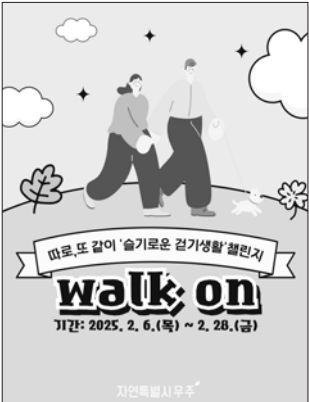


최훈식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악취로 힘들어했던 주민분들에 만족감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2월 걷기 챌린지 운영

무주군이 2월 걷기 챌린지, ‘걸어서 노담(NO! 담배)’ 속으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상 속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금연 실천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워크온(무주군민이라면 누구냐 가입 가능)을 통해 2월 한 달간 15만 걸음을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건강관리 용품(오십전 마사지기 등)을 상품으로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 어플리케이션 설치·가입 후 ‘걸어서 노담(NO! 담배)속으로’에 접속, 2월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목표 달성 후에는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박하영 팀장은 “걷기와 금연 실천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재미와 보람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고민하지 말고 당장 실천에 옮겨보시라”고 전했다. 2월 걷기 챌린지, ‘걸어서 노담(NO! 담배)속으로’는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063-320-8240)으로 하면 된다. 무주군은 주민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



연, 절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위험군 건강관리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건강모니터링과 검진, 대면상담 등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축제 행사장을 찾아가 기초건강검진과 상담 등을 진행하는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에도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소방서, 소방서장과 직원 간 소통 간담회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본서 2층 서장실과 각 센터를 방문하여 전직원 대상으로 격식없는 자율적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서는 현장 대응과 내부행정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시 애로사항 청취 △근무환경 및 복지 개선방안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제안 △조직 내 소통활성화 방안 등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용담면 지사협
올해 첫 정기회의 개최

진안군 용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노기환, 민간위원장 문동일)는 6일 용담면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마을복지사업 추진 및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논의했다. 2025년 용담면 마을복지사업은 ‘사시사철 따뜻한 돌봄사업’과 ‘사시사철 돌봄창고사업(행복사랑플러스)’이다. ‘사시사철 따뜻한 돌봄사업’은 80세 이상 독거노인과 심한 장애가 있는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밀반찬과 생선숙하꾸러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시사철 따뜻한 돌봄사업(행복사랑플러스)’은 2021년 2월 용담면·용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차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행복사랑플러스’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사업으로 모금액은 ‘사시사철 따뜻한 돌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용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지역사회 특화사업 추진 등 용담면의 다양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송선), 063-322-6668